

광주 기초선거구 획정 진통... 일정 올스톱

6·13 지방선거에서 3~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설전과 파행으로 벽에 부딪혔다.

의석수와 동수(洞數) 비율을 놓고 일부 의원들간 고성아 오갔고, 결국 상임위가 기약없이 정회에 들어가 안건심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후보자 심사는 물론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도 연쇄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단일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시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의원간 입장차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광산구 '마' 선거구(수원) 3석을 2석으로 줄이고 '다' 선거구(원단1·2, 비아, 임곡, 하남)는 3석을 4석으로 늘리고, '가' 선거구(송정1·2, 도산, 동곡, 어룡, 평동, 분방, 삼도)를 단일

시의회 의석수·동수 놓고 설전 끝 정치 일부 의원 "4인 선거구, 2대 2 쪼개기 구대" 자격 심사·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중단

선거구 4석이 아닌 2개 선거구 4석(각 2석씩)으로 나누자는 수정의견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인구와 동수 비율을 감안하고, 특히 8개 동이 몰려 있는 선거구는 2개로 쪼개자는 의견에 대해 소수 정당과 사회적 약자, 여성 등을 위해 3~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당초 취지가 훼손된다는 반대론이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됐고, 급기야 위원장 권한대행이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미지 관련대행은 "3~4인 선거구 확대를 기대했는데 선거 때마다 답습해온 4인 선거구를 2대 2 선거구로 쪼개는 구대정치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표결만 강요하는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

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당초 이날 상임위 의결에 이어 이변주 안으로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첫 단추를 끼지 못하면서 선거 일정의 연쇄 차질이 우려된다.

시의회 회의규칙상 상임위 의결 후 심사보고서가 없는 본회의를 소집하거나 의장 직권 상정이 어려워 상임위가 계속 파행을 겪을 경우 선거구 획정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각 정당의 기초의원 출마자 적격심사와 예비후보자 등록,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모두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연쇄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같은 우려

에서 "오는 2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해온 상태다.

한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는 "당초 지난해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개정시한을 넘긴데 이어 예비후보 등록마저 시작된 마당에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인내 하루 하루 속이 타들어 간다"며 "조례 개정 작업이라도 서둘러 이뤄졌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시 선거구획정위는 최근 3~4인 선거구 확대를 빼대로 한 획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인구와 동수 비율을 현행 3대 7에서 5 대 5로 의원정수를 조정해 현재 25곳 선거구가 20곳으로 줄어든다. 또 2인 선거구를 16개에서 2개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는 9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4인 선거구 1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구적용 비율을 50%로 할 경우 광주 전체 기초의원 수 59명 중, 동구는 1석이 줄고 광산이 1석 늘어난다.

/김도기 기자

"500만 광주광역경제권 시대 열 것"

강기정 전 자문위원장, 광주시장 출마 선언



강기정 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이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전 자문위원장은 1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광주시민과 함께 500만 광주광역경제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강 전 자문위원장은 "문재인 시대의 광주는 달라야 한다. 5·18의 실제적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며 "이에 5·18을 넘어

더 큰 광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강기정의 소명이자 출마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전환 현장을 보면서, 34주째 광주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면서 광주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그 전환의 시작이 바로 '500만 광주광역경제권 구상'이다. 이는 광주와 그 주변도시의 자원과 기능을 연결하는 '광역경제권벨트'라고 설명했다.

강 전 자문위원장은 "지방분권시대가 되면 수도권과 부산권 중심의 경제블랙홀은 더 커진다"며 "두 경제권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광주가 당당한 중심으로 전방·북을 아우르는 지평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주 기자

"다시 찾는 청정·관광 구레 건설"

최성현 전 구레부군수, 구레군수 출마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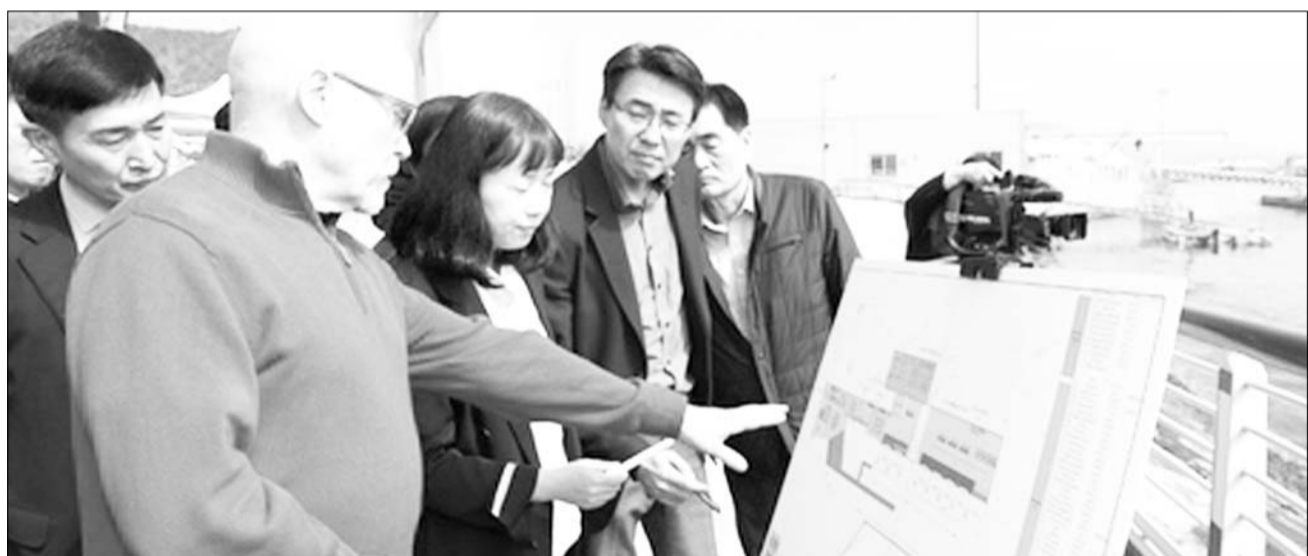
청명한 행정전문가로 정평이 난 최성현 전 구레부군수가 구레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당 군수후보 경선에 뛰어 들었다.

최 전 부군수는 13일 구레 섬진아트홀 평생교육실에서 언론인,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6·13지방선거 구레군수 출마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 전 부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합과 통합을 바탕으로 군민을 섬기고 더불어 행복한 구레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며 "다시 찾는 청정 구레, 생각나는 관광구레 건설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출한 관광구레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적에 국립공원 종합원센터, 수달생태공원, 토산어류생태관 등이 연계된 용인 에버랜드에 버금가는 초대형 자연친화적 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해 구레를 호남최고의 관광메카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레의 역사가 자랑하는 천혜의 명소를 활용해 체험과 투자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1차산업에 머물러 있는 농산업을 6차산업화 등 생산성 있는 다양한 산업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며 "군정운영의 기회가 주어지면 창조적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출마포부를 밝혔다. /구레=오광범 기자



FNA 마스터즈 위원들 광주 방문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FNA 마스터즈위원회 위원들이 12일과 13일 광주를 방문해 2019세계수영마스터즈대회 선수촌과 경기장 현장을 둘러봤다. /광주조직위 제공

불붙은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일부 전남도의원, 오늘 장만채 입당 반대 기자회견

이개호 의원의 전남지사 불출마로 전남지사 선거전 구도가 재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전남도원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견제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레이스가 시작됐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9명의 전남도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장만채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체 도의원 29명 중 일부가 참여하며, 담양·함평·장성·영광 등 이개호 의원의 지역구와 화순 나주 등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서비스관 지역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비례대표 의원들이 동참한다.

이들은 이날 장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과 경선참여 반대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문형주의

원(화순1)은 "장만채 도교육감은 지난 해 조기 대선 국면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초청,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강연을 했다"면서 "우리당 전남지사 후보로서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측은 "위기 속 전남교육을 타개하고 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유력 정치인, 대선주자들을 초청, 특강을 하면서 우리의 실상을 알리려고 했다"면서 "안 후보 이외에 송영길 의원 등이 특강을 했고 다른 대선주자들도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호영 기자

북구 야구장 주변 불법차량 단속

광주 북구는 2018 프로야구시즌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홈경기 기간 경기장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매년 KIA 타이거즈 홈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경기장 주변 대로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증, 인근 아파트 진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최근 시간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KIA 타이거즈 우승으로 야구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장을 직접 찾는 관람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구는 오는 24~25일 열리는 홈 KT 2연전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정규시즌 동안 특별 단속반을 편성,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경기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동단속반 차량인 경우 1차 촬영 10분 경과 뒤 2차 단속, 도보단속일 때는 예고문 부착 10분 경과 뒤 사진 촬영으로 단속한다. 이중 대각주차와 전면우로 이·삼중 불법 주·정차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개막전이 열리는 오는 24일에는 교통지도과, 모범전자차회와 노인일자리사업단 등 30여 명이 참여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갖는다. /김도기 기자

효

행복·감사·봉사

사랑 실천

호남매일신문이 창사 16주년을 맞이하여 효와 불우이웃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며 노인 정신 건강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효사랑에 대한 의미와 인식을 재정립하고 효사랑이 곧 가족사랑 나라사랑임을 폭넓게 홍보하고자 효사랑 연중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주최 | 호남매일